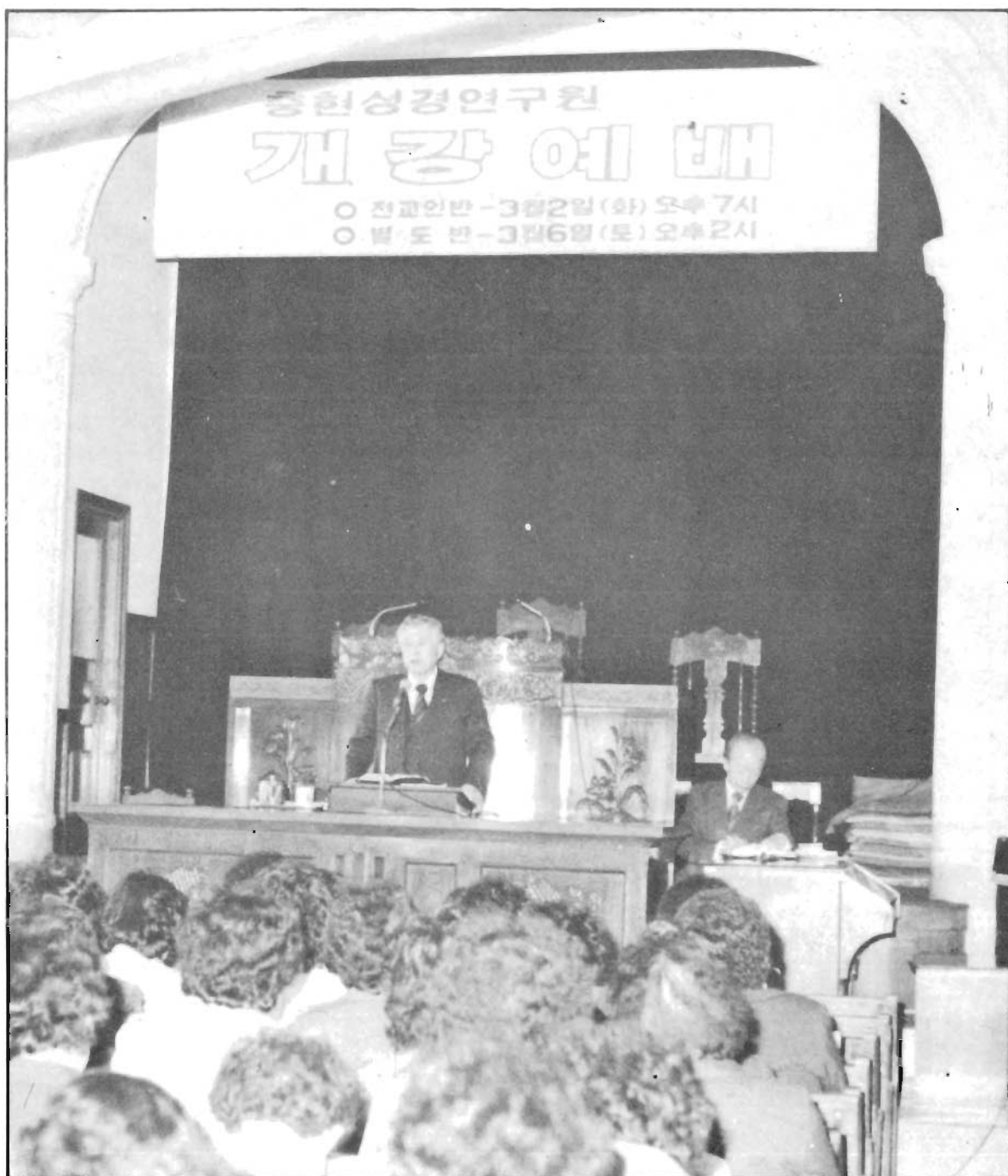


월간 충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3** 월호



전교인 성경공부를!

- 말씀배워 바로 생활하자 -

성경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필요이상의 바쁨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게으름이 앞섰고, 세상재미와 장사하는 시간때문에 하루에 몇시간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밤이 지새도록 시험 공부도 하며, 연구하고 애쓰는데 말씀상고엔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배당에 출석한 횟수가 10년, 20년이 넘은 교인들도 막상 성경에 대한 대화를 요청하게 되면, 거절하거나 머뭇거리는 경향을 흔히 볼 수 있고, 또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말씀이 진리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만 애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품고, 철야하며 간구하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배우셨고, 가르쳤던 성경말씀엔 나태했음을 입증해 준다.

우리는 영감으로 된 성경이 디모데를 주님의 사역자로 키운 교훈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 딤후 3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온전케 할 교재를 찾는다고 하면 어떤 신학서적이나, 신앙수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감의, 책 성경만이 인간을 온전케 할 비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으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줌과 동시에 택자는 성경의 진리에 접해 이를 접수하며 (요 1:12) 구원의 기쁨으로 (행 2:41-42) 새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니게」가 아들에게 이를(성경) 가르쳐 구원을 얻게한 것처럼 구원의 복음 진리를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하는 진리가 함축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 교회가 3월부터 실시하는 전교인 성경공부는 이러한 기본적 개요와 목적속에서 거교회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호리라도 성경공부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사설에 현혹되기 쉽고, 신비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휩쓸려 정통적 성경의 구원관을 외면케 된다.

우리는 말씀배워 바로 생활하기 위하여 성경교육의 강화는 물론, 진리를 수립하고 파수하며 전파해야겠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섬기며 행하여 복의 근원적인 기쁨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자비(금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신앙인격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완수하는 책임 있는 천국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敎
民族福音化
世界宣敎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0권 제3호 · 통권 97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1982년 3월호 차례

* 1982년도 교회성구 *

〈시편 118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찌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편이 되사 나를 돌보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전승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와 의로운손이 품이 틀렸으며 여호와와 의로운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을 열찌로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와 의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후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중에서)

권 두 언 / 전교인 성경공부를	손경수 · 2
이달의말씀 / 부임: 설교	김창민 · 4
지상특강 / 성경적 측면에서 본 배자훈	신성준 · 6

특 집 / 전교인 성경공부

성경적인 성경을 위해 꼭 필요해

하용조 · 9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2)〉

·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정상우 · 14

〈경건하고 건전한 가정을 위한 특별기획 (3)〉

·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2)

양은순 · 22

〈김창민목사의 주기도론 강해 (3)〉

· 나라이 임하옵시며

김창민 · 26

삼월의시 / 무화과 나무의 시현

오병학 · 27

연재칼럼 / 바울도 전막을 입고 참았나

이건숙 · 20

편집실칼럼 / 처호 - 처주의 명령

김종주 · 18

물 맺 돌 / 광고 - 유혹 - 도전박상

편집실 · 18

책 소개 / 현대 기독교전교

이형수 · 19

찬송가감상 / 장로회선교회 집사자 설으니

김하진 · 19

성례 / 바울 신앙고백의 바탕위에

김원남 · 12

기관소개 / 충현 성경연구회

편집실 · 25

전교사 - 전교지도자

교계소식

이달의교우동성

교회소식

3월의생사

회집하고나지

표지설명 / 1982년도 1학기 성경연구원이 개강예배를 드렸다. 전교인의 신앙성장을 위해 전교인성경공부를 실시. 금년에 16개방으로 편성, 새문예 출판하고 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이달의 말씀 □

복있는 성도

〈마 5 : 1 ~ 12〉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땅위에서의 복에 대해 살펴봅시다.

옛날 중국에서는 수(장수), 복(재산), 록(벼슬)을 행복의 최고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 복은 우리 개인에게는 건강과 부귀와 지혜와 성공등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에게는 효도와 공경과 화목과 사랑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보람되어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 후손들에게 본이 되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기 원하는 땅위의 복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기가, 벼슬이 높아지기가, 박사학위를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얻은 복 또한 누리기도 힘듭니다. 왜입니까? 돈이 생기면 사기꾼과 도적이 출몰거리고 벼슬이 높으면 원수가 생기게 되어 누리가 힘듭니다. 무엇보다 땅위의 복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며 근심과 죄악이 섞여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위의 복도 자기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옛 사람들도 '적은 복은 부지런한 사람의 주먹 위에, 큰 복은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첫째, 깨끗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땅위의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탄 마음이 생겨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내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마음과 몸과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둘째, 근심이 도망합니다.

세째, 평안해집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무슨 문제에 부딪히든지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네 째, 승리자가 됩니다. 내 자신과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자, 하나님의 복으로 지혜가 생기고 영육간의 부자가 되어 땅 위에 사는 동안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제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여덟가지 복을 받을 사람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두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난한 마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 5 : 1 ~ 10〉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더 생각해보면,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이 나 놀라운 기술이나 실력을 갖춘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읍니다. 마음이 빈,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교만한 사람은 갈 수 없읍니다. 사람이 비교할 때 높고 낮음의 차이가 굉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선전과 외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는 태산같은 바로왕의 세력 앞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읍니다. 어리석은 생각같이 우리는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천국을 건설하는 성공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은 욕심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아무리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마음이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마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땅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남을 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내 '자신이 먼저 울어 다른 사람을 웃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땀을 바로 흘리면 가난과 천대가 없는 것처럼 눈물을 바로 흘리면 미움과 저주가 있을 수 없읍니다. 내 죄를 울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 민족의 죄를 울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그곳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얻은 복은 지극히 작은 복이지만 그러나 그 복이 귀합니다. 한결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노력하여 땀흘린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육에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읍니다. 나의 죄와, 내 가족과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읍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아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몸의 건강과 장수하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육간에 부자가 되고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후손이 잘되고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받는 복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성경적 측면에서 본 제자훈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2대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 명령은 구약성경의 첫번째 책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고 두번째 명령은 신약성경의 첫번째 책인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8-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명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culture the earth」란 말로 땅을 간다, 경작한다는 뜻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문화, 유신론적인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해 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두번째 명령은 우리가 흔히 듣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또는 복음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의 문화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28장의 복음명령이 우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먼저 시급한 것은 그들이 복음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나서 문화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명령의 내용을 마태 28장 18-20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이나 영어성경을 보면 19절이하의 내용에 동사가 「제자를 삼아」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명령형으로 되



신 성 종 목사

〈본교회협동목사 ·
홍신 대학원 교수〉

어 있습니다. 과거명령형은 결단적인 행위를 나타내는데 쓰였습니다. 그외에 「너희는 가서」에서 간다는 말이나 「세례를 주고」의 주라는 말이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지상명령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1. 「제자」란 말의 뜻

제자라는 말은 4복음서에 230회나 나오는데 그중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는 말은 「신자가 되라」 또는 「신자를 만들어라」라는 뜻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중에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follow of Jesus Christ)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자라는 말을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훈련받는다라는 「discipline」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곧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께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2. 제자의 자격

제자의 자격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중 8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12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 소위 제자도(discipleship)를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8 가지 제자의 자격을 갖추라고 합니다. 이것을 8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가 받는 축복이며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모두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외적인 학문, 돈, 권력등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도를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는 교사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후에 제자와 운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필연적으로 따라 오는것이 애통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항상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애통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표어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애통해야 합니다.

3)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맹수를 길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맹수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어린이와 같기 때문에 온유해야 합니다.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특히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만 중시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장이나 레위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가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6)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가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심(一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紧张해집니다. 학생이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선생이 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에 사실적입니다. 이런 속에서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8 장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제자가 되는 비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늘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소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GROW라는 단어는 성장을 뜻합니다. 이 글자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1) 복음(Gospel)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2) 규칙적인 기도(regular pray)입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니다. 기도는 웅변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3) 순종(Obedience)입니다.

4) 증거(Witness)입니다.

유치부나 유년시절에서부터 증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4. 제자의 사명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우리는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너희는 가서」-가는 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뜻합니다. 오늘날 선교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각도, 여러 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복음전하는 복음화를 말합니다.

2) 「세례를 주고」-교회 성장을 말합니다.

세례를 주고라는 말은 교회의 성장을 뜻합니다.

3)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기독교 교육을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나 교회성장이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제자화운동, 제자도라고 부

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와같이 선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두뇌에서 두뇌로 전달하는 지식이 아니고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생활화되지 아니한 신앙을 야고보는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르친 후에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소위 문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① Christ of against culture

즉 문화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입장에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극장가는 것 죄다, 세상공부해서 무엇하느냐, 등 완전히 세상과 등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② Christ of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against culture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식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식으로 살고 거기서 어떤 갈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③ Christ above culture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그리스도는 문화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④ Christ and culture in a relationship of tension

그리스도와 문화는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고 성격이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세상에 나가 살 때 갈등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부패되었지만 세상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⑤ Christ is a reformer of the culture

그리스도는 문화의 개혁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문화관입니다. 물론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또 이 세상의 문화와 교회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특히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만 중시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문화를 형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기독교교육, 더 나아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

(이 원고는 연초 단기수련회시 강의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 편집자)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바른 방법으로 3개월만 하면 큰 변화가 생겨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해

하 용 조목사

(두란노서원 대표)

어떤 것을 분배할 때 한 사람이 모두에게 나누어주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분담해서 일을 할 경우 무척 쉽고,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사람을 교육하자면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몇사람을 훈련시켜 그 사람들을 통해 일을 분담하면 성경공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파종한 업무-설교, 심방, 상담, 각가지 행사, 회의등-로 인해 지쳐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쫓기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공급받을 시간은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3년정도 목회를 하면 여러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잘 훈련된 사람들을 통한 전교인 성경공부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 목회와 성경공부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적용시킬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목회의 2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공부가 대부분 교회밖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고 이것을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기에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1) 설교중심의 목회(牧會)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주일낮, 저녁, 수요일까지도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목사님들이 잘 조직한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지난 주일의 설교제목이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한 본인들도 설교제목과 본문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설교만 가지고는 교인들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2) 성경공부 중심의 목양(牧養)

목회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적인 의미가 깊고 목양이라고 할 때 교회밖에서 양무리를 칠 때를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 목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목양하는 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목회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분명한 재해석,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다. 이것은 본래의 목회나 목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공부라고 할 때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가 있고 교회밖의 단체에서 하는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밖의 단체를, para-church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제도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목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안에서 말씀선포와 성례전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말씀 선포와 성경공부를 혼동하는 예가 많습니다. 설교는 설교로서 말씀선포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공부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점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며 또한 성경공부를 통해서는 더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하며 다니는 것보다 1년동안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로님들이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 교회는 제일 많이 다녔고,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점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성경공부의 형태

성경공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개 4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 조직신학적 방법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성경중에서 조직신학적인 테마를 택해 연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은, 교회는, ... 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옵니다. 예는 들어 문선명의 성경공부법,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공부법등이 전부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2) 성경신학적 방법

성경신학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교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S. B. F에서 나온 교재가 대표적입니다. 이 성경 연구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에 꼭 소개되어져야 하는 방법입니다.

3) 역사신학적 방법

역사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델성경연구가 이런 방법입니다. 베델성경연구는 「구속사」라고 하는 흐름을 놓고 신구약 전체를 꿰매고 있습니다. 역사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성경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4) 실천신학적 방법

이런 방법의 성경연구는 많습니

다. 소위 전도성경공부, 상담과 심리학을 이용한 성경공부 등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다원화 되어지고 전문화 되어지면서 이런 류의 성경공부방법이 많이 요구됩니다.

이런 성경공부의 방법중 성경신학적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적 방법을 주식이라고 하면 기타 방법은 별식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을 성경에서부터 유출해 내는 방법이지만 진짜 성경공부는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받는 비결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보면 은혜받는 비결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도전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 해야 하며, 그 말씀이 오늘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교인들이 정상적이며 이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매일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일이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성경공부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한 목회라는 구조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목양이라는 두 구조사이에서 어떤 합일점을 찾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설교만 가지고는 정상적이고, 건전하며, 이상적인 교회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목양적 성경공부의 방향

목회와 성경공부를 묶어서 목양적 성경공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목양적 성경공부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1)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목양적 성경공부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목회적 현상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강조, 곧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독교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이 이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루터가 말한 카톨릭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적 의미로 발전시키지 말고, 목사의 독보적인 하나의 권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와서 교인과 더불어 같이 양육하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 말씀이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공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이 생활화되어 우리 주님께서 부락하신대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한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리라는 바로 이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며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며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2) 교회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온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경공부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3)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대상과 교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대상의 지식수준, 생활형편, 연령, 남녀별, 각 구성원의 신앙정도등을 분명히 알고 이에 따라서 교재를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교재는 많은 것을 연구하여 각 대상에 맞게 잘 정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성경공부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

1)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이 일을 주관하고 실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의 책임자가 먼저 이 성경공부에 눈뜨고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래 사람이 이런데 먼저 눈뜨고 실시를 요구해 올 때 참 딱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공부라고 시작한 했지만 성경공부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예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공부가 계속되면 교회내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조직중심, 행정중심이던 것이 말씀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해도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회자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좋은 공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성경공부에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소수인원들이 모이기에 서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공부는 실패합니다. 교회내에 아늑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성경공부를 해 본 경험자가 해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 했으면 학생으로 들어가서 배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공부의 분위기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공부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나중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체험을 해야만이 그 분위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독점적인 지배나 영적권위로 눌러 버리면 성경공부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5. 성공적인 성경공부를 위한 제안

1) 성경공부에서 생기는 창조적인 힘을 각자 은사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른 방법에서 성경공부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아니 1개월 이내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생활이 기쁘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선교적인 면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겸손한 성경공부 리더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좋은 성경공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참 교사임을 아는 성경공부 리더를 양성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리더를 양육할 시간이 없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탄 곳에서 배워오게 해서 그 사람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성경공부의 방법을 시간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공부 방법을 위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좋은 책들인 줄 압니다. 방법을 잘 연구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각 방법의 뒤에 숨어있는 프로그램(Hidden Program)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회의 목회원리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단계적 목표를 정하고 주일설교, 수요일설교, 성경공부가 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언인교회나 창조과학회 등이 이런 성경공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남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부흥했다니까 우리도 해 보자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각 교회에 맞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교재선택을 바로 하고, 이에 알맞는 리더를 양육해서 아주 소수인원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기도를 하면서도 전교인 성경공부를 시작하는데는 별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시작하면 철저한 관리, 예외가 없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성경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 교회들이 건전하고 빠르게 자라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 원고는 두란노서원에서 열린 하용조 목사의 「목회적 성경공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 편집자)

1982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연 4회의 성례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지난 1월말에 성례식을 가졌다.

연 4회 성례식을 갖게 됨에 따라 우리 모두는 다른 때와 달리 성례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흔히 사람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심으로 인생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다는 표를 받는 것이요, 또 죄인된 옛사람에게서 떠나 이제는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표이다.

를 잘못 가져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대로 하지 않고 다른 뜻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목사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 그 떡과 잔에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게 된다고 하고 ② 목사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 그



성례식에 어떻게 참여하나?

바른 신앙고백의 바탕위에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성의없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례도 자주 하게 될 때 뜻없이 확실한 믿음과 마음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참여하게 될 수가 있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성찬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매 성례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바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①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을 뜻한다.

1. 세례

세례는 목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세례는 목사가 물로 베푸는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더욱 중요하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 성찬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교인들은 그 누구나 모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기도하고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쫓겨준 몸이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준 피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고 제정해 주신 성찬의 의미

떡과 잔의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와서 계시게 된다는 생각들이 있고 ③ 목사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 그 떡과 잔의 포도주가 먹고 마신 자의 뱃속에 들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해서 그 사람의 피와 살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섞여 있게 된다는 잘못된 성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성례에 참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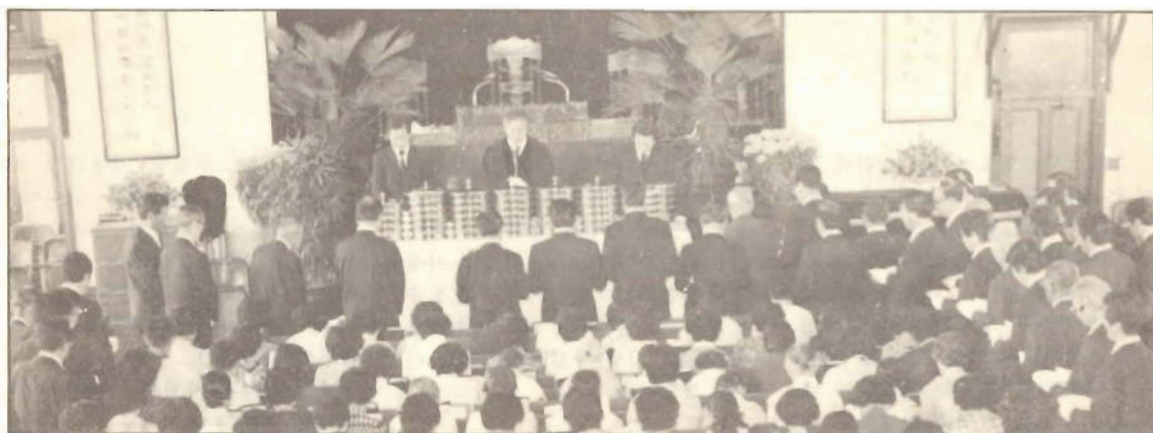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와 쫓겨준 살을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확신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의 생명적 연합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죄악된 인생은 창세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성의 없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례도 자주하게 될 때 뜻없이 확실한 믿음과 마음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참여하게 될 수가 있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② 어떻게 성례에 참여하나

1. 세례받는 자의 바른 자세

세례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세례라는 말이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함



(교회에는 금년부터 1년에 4회 성례식을 갖기로 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하여 모든 죄를 씻어 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자는 이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모든 죄를 묻어버리고 (장사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심으로 (부활) 죄와 관계없는 새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자는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구주인 것을 믿어야 한다. ② 죄악을 범함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눈물흘리며 죄를 통회 자복하고 ③ 새사람 된 자로 하나님께 헌신 봉사를 다짐하며 ④ 새 생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도록 감사·회개·헌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신하여 신앙고백을 하고 어린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더욱 바른 자세를 잊지 말고 어린이의 신앙을 위해 책임지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바른 자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빚어주신 몸이며,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여해야 한다. 또한 ① 떡을 들고 잔을 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우리의 죄악대신 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들어야 하며 특히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은 인생 죄악을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며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는 사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고 ② 떡과 잔을 드는 성도

는 이제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서 얻게 되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더욱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일에 힘다할 각오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① 신앙고백을 바로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② 모든 죄악을 중심에서 통회 자백하며 회개하여야 할 것이고 ③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새 사람된 것을 확신하고 감사생활을 해야 하며 ④ 다시는 주님을 노엽게 하는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주를 위해 생명들려 헌신하여야 할 것이고 ⑤ 죽도록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생활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정 상 우 목사

(후임제일교회 담회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위에 살아가는 때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은 우선 가정이 튼튼히 세워졌을 때에 가능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윌리엄 윌리엄 박사는 결혼 대상자의 선택 문제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하여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내주신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으므로 먼저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살펴보도록 하겠읍니다.

① 성경에 나타난 결혼진리

1. 결혼은 하나님이 내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첫번째로 축복하신 일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서약에서 이루어

진 귀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첫번째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난처하게 된 연회장을 예수님은 ‘심히 좋았던’ 곳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2.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제도를 세우시게 된 동기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아담의 형편을 아주 좋은 형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하와를 지으셔서 두 사람을 부부로 세우신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였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심오한 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원칙’을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찌어다”의 첫째 원칙은 일부일처의 원칙입니다.

둘째 원칙은 부부는 나눌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간음한 연고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하였으나 사실 간음했을 경우도 그리스도인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 주님의 뜻입니다.

세째 원칙은 사랑의 원칙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데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하나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상이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에 갈 때에는 나누이고, 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몸을 이룬 부부는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부로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의 기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지요.

3.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첫째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나 또 하나는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모르지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구속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과 그러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청지기 교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멘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는데 하물며 타락한 인생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전도서 4장 10절에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얼마나 더 유익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회는 무서운 최악의 소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질서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세우시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욕구를 채우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5.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에 이 결혼을 통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슬하에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6.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님이 인간을 구속해 주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엡 1 : 6, 12, 14) 결혼

도 물론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생활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 아브라함 가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혼의 교훈

1. 결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

1)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가가 9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만큼 이삭의 결혼도 아브라함에게는 귀중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의 번영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40세에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으로 만들기 위하여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첫째가 가나안 여인은 안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왜 입니까? 그것은 알을 내다 보았기

때문이며 가나안 원주민들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 15 : 16) 아무리 좋은 며느리감이라 할 지라도 멸망받을 족속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선민의 성별입니다. 성별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다루시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둘째는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다른 곳에서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초조한 생각도 갖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참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의 결혼에 대해 이런 신앙 가운데의 올바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2)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땅으로 보내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의 딸 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주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은 우선 가정이 튼튼히 세워졌을 때에 가능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윌리엄 올리란 박사는 결혼대상자의 선택 문제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브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은 브두엘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말씀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런 신앙적인 아름다운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에는 무조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브두엘은 이 일에서 자녀의 의사도 존중하였습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리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자원으로 이 일에 동의하게 하여 일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결혼은 부모의 문제보다 실제로 자녀의 문제임을 부모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결혼이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큰 관심이기도 하지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의 결혼은 아담을 위한 축복이었으며 그것은 사랑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관심도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 세시며 시편 84편 10절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신앙,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에 있어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만 바로 가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 결혼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

1) 이삭

① 이삭은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의 제물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삭의 효심이 없이는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신앙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이삭은 나이 40에 자기의 결혼문제도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하나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결혼하여 낳은 예서와 야곱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서가 장자였으나 장자의 직분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취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축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중에서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것만 살펴봐도 봅시다. 예서와 야곱은 동갑이었으나 예서는 40살에 장가를 갔으며 야곱은 7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예서는 둘째 부인을 얻은 후이고 야곱이 떠난 후에 셋째 부인까지 얻었습니다. 예서는 결혼할 때에 부모님이나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예서가 셋째 부인을 얻은 동기가 창세기 27장 8,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 또한 진심으로 부모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회개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70세가 넘도록까지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을 떠나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14년동안을 머슴 노릇을 하였습니다.

②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신앙,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에 있어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만 바로 가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③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와 그의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삭은 엘리에셀을 보내놓고 들에 나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④ 정당한 결혼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먼저 들렀다가 그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⑤ 리브가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윤리입니다.

2) 리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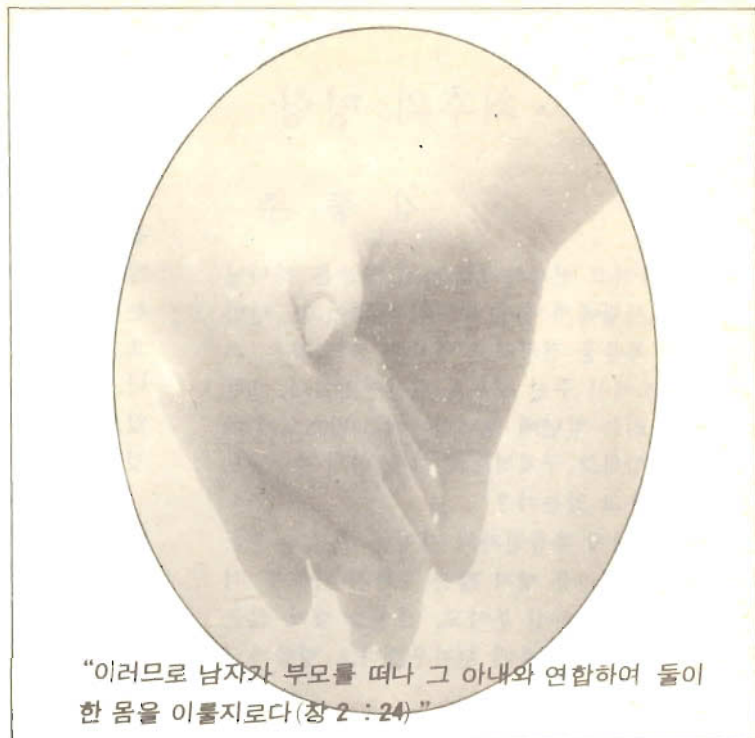
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리브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을 잘 선용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패지코에 금고리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외모뿐 아니라 성품도 아름다웠습니다. 엘리에셀이 나타나 물을 구했을 때 낮선 나그네지만 그가 그에게 뿐만 아니라 끌고 온 약대들에게도 물을 떠 주었습니다. 또한 51절부터 61절까지를 보면 리브가의 영적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고 물을 때에 선뜻 가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한번도 보지 못하고 더구나 집을 멀리 떠나는 일이었으나 엘리에셀의 말을 들은 리브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겉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②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떠난, 부부의 관계를 떠난 성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결코 성은 사교적 방편도 아니요 단순한 육적인 향락을 누리는 도구도 아니고 참된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도 아닙니다. 참된 사랑의 표현은 성으로 나타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젊은이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여 결혼 전에는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③ 남편을 존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이삭에게 올 때에 들에서 이삭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리브가는 낙타에서 겸손히 내리고 배일을 썼습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윤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남편이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이라는 그런 면에서 존경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같은 아름다움, 순결, 정숙, 이 세가지는 언제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자세이며 상대방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③ 성경적 결혼의 실제적 제언

1.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신앙적인 올바른 결혼관을 세워야 합니다.
2.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

어 떠드리를 찾았듯이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서로서로 소개해 주고 중매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4.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목자로 믿는다면 결혼을 인생의 전부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의 결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본받아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잘 가꾸어 나가시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게 되실 것입니다. (*)

최초·최후의 명령

김 중 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후의 지상명령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년에 몇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구체적으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신 그 분은 길가에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격노하여 저주하신 분이요,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요.

복음! 내 마음속에 최고의 보화를, 생애의 최대의 사건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실수보다 더 크고 나쁜 실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서양격언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

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침묵은 금이 아니다. 지난해 1년 혹은 2년 동안에 우리는 과연 몇사람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를 영접하도록 도와 주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도와준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첫째는 영적인 출생이 잘못된 것이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게 되어 있고 성장한 후에는 재생산하게 되어있는 것이 생명과 창조의 원리이다.

두번째는 미성숙이다. 즉, 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반문해 본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직고할 때가 있으며 각자의 인생을 결실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과연 결산의 항목은 어떤 것일까? 명예, 물질, 권세, 그런 것일까? 최후의 명령인 증인으로서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따질 것이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은 영적인 재생산의 비전을 갖고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 책 소개 ◇

프린스턴 신학교 김 영익 옮김

現代基督教宣敎

국판 · 218p · 2500 원 · 성광문화사 · 1981

이미 세계적인 성경강해자요, 복음주의적 정열을 가진 설교자와 신학자로 널리 알려져있는 저자는 「현대기독교 선교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라는 그의 중요한 저서에서 지상위임령 (마28:20)과 큰 계명 (마22:39)을 '사회 속의 영적 육체적존재 (a body-soul-in-community)'로서의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선교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이중적 봉사의 사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선교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직업, 지역사회, 국가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저자 특유의 주장을 통해 복음 전도만을 내세우는 전통적 선교관과 '살롬'의 수립을 주장하는 현대 에큐메니칼 선교관을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세심한 공평성을 견지한 채 분석, 비판하여 종래의 수직적 복음해석과 이에 대립하는 수평적 복음해석을 종합한 입체적 복음해석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자유와 보수, 극한대립에 석상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격과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며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정열과 오늘날의 복음현장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바른 지혜가 더해지리라 본다.

선교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관계자는 물론 청년·대학생들이 꼭 한번은 읽어 바른 선교관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록으로 「균형잡힌 기독교 (Balanced Christianity)」가 함께 번역되어 있다.

이철수 (월간충언편집부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있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후에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 찬송가 감상 *

할 찬송이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의 모든 부끄럼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4 절)

이 찬송은 191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조지 베나드(Re. George Bennard 1873. 2. 4 - 1958. 10. 10) 목사가 작시하고 작곡한 찬송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굶주림과 고통을 당했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다. 이 찬송가는 그가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작시한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한 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린 것같이 많은 사람들이 베나르목사가 작시 작곡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적 지진이 일어났고 마음의 문이 열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를 때 세파에 굳어진 마음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야 하겠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겠다. 그리고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가 지신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 물맷돌 *

광고 - 유혹 - 초전박살

현대기업의 특징중 하나는 치열한 광고전쟁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여간해서 광고를 읽거나,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를 읽게 하고 나아가서는 상품을 사게 하려면 광고작성시 몇가지 필요요소가 꼭 들어가야 한다.

- ① Attention (주의를 끌어야 한다)
- ② Interest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 ③ Memory (기억하고 상상하게 해야 한다)
- ④ Desire (사겠다는 욕망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 ⑤ Action (사게 해야 한다)

마키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방법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 ① 생각 (악한 생각들,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갖고 주의를 집중하게)
- ② 상상 (생각이 발전하여 상상하여 마음을 지배한다.)
- ③ 욕망 (마음이 지배당하니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
- ④ 실행 (욕망에 사로 잡힌 육체란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쉽게 실행)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1 단계인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생각이 2, 3 단계인 '상상'이나 '욕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유혹이 생각의 단계에 들어오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초전박살 전법이다.

『중달새가 머리위에서 우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나의 머리에 동자를 뜨는 것은 막을 수 있다 - 루터』

바울도 천막을 잡고 살았다고

이 건 속

(소설가)

이제는 어디 가나 기독교인을 만나게 된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 금세 형제 같은 기분이 되어 스스로 겸 없이 대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다정히 모여앉아 하나님의 사랑, 감사, 체험담을 수북히 털어놓고 아멘을 연발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주 안에서 형제임을 자랑하고 피차를 위해 기도도 한다.

이렇게 오손도손 사키어 오다가도 돈 때문에 불 같은 마음이 일어 뒤틀려 돌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내게 낯선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는 돌아서서 소곤소곤 귀띔을 했다.

「저분, 이상한 사람이니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돈계산이 흐려요.」

「그래요.」

「급하면 뛰어와서 금방 준다고 귀가곤 곧 잊어버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와서 받을 동동

구르며 귀가고 또 고만이에요.」

「나쁜 버릇이군요. 왜 좀 꾸중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한번 심은 소리를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이 적다고 도리어 공박이에요.」

「그 뿐인 줄 아세요. 기도중에 필요한 돈을 내게서 받아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하나님을 업고 나오니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직도 섬쩍지근한 주역이 나를 슬프게 해준다.

어느 수요일 아침이라고 기억된다. 누군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나가보니 초라한 옷차림의 청년이었다.

사연인즉 너무 벌이가 안되 교회에 가서 열흘 동안 울며 매달리다 내려와보니 만삭인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더라. 할 수 없어 목사님댁을 물어붙어 찾아왔다고 담의 똥만한 눈물을 떨구었다.

그의 눈물에 나도 마음이 저려 함께 울었다. 그래서 아낌없이 쌀과 돈을 주며 열심히 살라고

* 교우기업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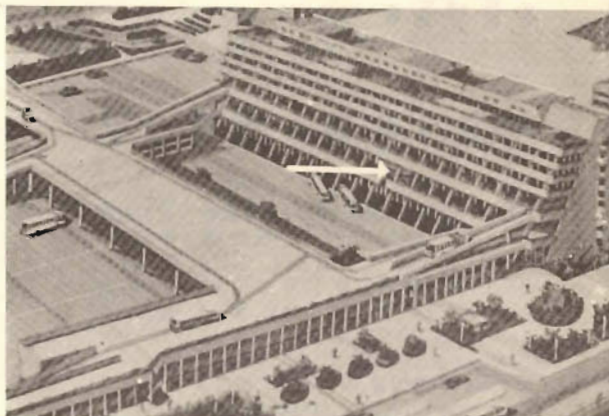
창업 49년의 신용



남 문 당

전화 : 599-3776, 593-0192

金正泰 집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2층 5호로 이전

격려까지 해주었다.

다음날 또 그 청년은 찾아들었다.

「전 의사 수리공이에요.」

「잘 됐군요. 열심히 일해 벌으셔야지요.」

「어제 수리한 소파를 맡았는데 천값이 없답니다. 사모님 그 돈을 써주시면 이틀 후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어디서 빌려라도 주세요.」

「돈을 꾸적이 없어요.」

「그만한 위치에서 돈을 빌리기는 쉬울텐데요」

나는 시무룩해져서 입을 다물었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아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았다.

난 가슴이 뜨끔했다.

「이번 주일에 널 십일조는 있지만……」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청년의 눈에 생기가 넘쳤다.

「오늘이 목요일이니 토요일 아침까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인데 그냥 주일까지 집에 두느니 빌려주리라 생각하고 몽땅 내주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흔적도,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십일조를 도둑질해가다니……

십일조를 써준 나도 잘못이고……

스멀스멀 치밀어 오르는 미움을 가누기도 힘겨웠고 남편의 무중속에 숨어서 울고, 지나가는 청년마다 괜히 의심을 품고 쳐다보고……,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그 뒤론 절대 십일조를 내주는 일이 없지만, 아물든 그 일은 우울한 추억이 되버렸다.

남편의 학위는문이 사도바울을 깊이 연구한 것이기에 종종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대화에 올랐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바로바로 떠나갔던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결혼도 않고, 안절까지 앓아가며 지하감옥을 드나들었던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게다가 교회의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고 천막을 잡고 살았으니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 부부는 똑같이 눈물을 펴펴 쏟은 적이 많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했던 그 시절, 우린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했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을 떠올리고 「바울도 천막을 잡고 살았나오.」를 모토로 삼고 용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졌었다.

땀흘려 일해서 자족하고, 주변 형제들에게 단정히 행하며 궁핍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의 일을 해낸 사도바울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을 것이다.

「나도 천막을 잡고 살았는데, 왜 그리 게으르냐. 너희 불쌍한 사람들아!」

= 방송설교안내 =



	기독교 방송 (837KHz)	극동 방송 (1188KHz)	아세아 방송 (1566KHz)
김창인 목사	• 토요일 오후 9시 ~ 9시 35분 <주일 낮 예배 실황> • 매목요일 0시 45분 <마태복음 강해>		• 매주일 오후 7시 15분 <주일 낮 설교>
신성증 목사		• 매일 오후 8시 40 분(주일 제외) <엠마오성경연구>	
이종윤 목사			• 매월요일 오후 8시 45분
부 목사	• 매목요일 0시 30분 <통일의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2)

양 은 순집사



— 지난번의 ① 첫째 열쇠 - 영적성숙
② 둘째 열쇠 - 남편에게 복종 ③ 세째 열쇠 - 아내를 사랑에 이어 나머지 4 가지 열쇠를 계속해서 실리고 이번호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를 끝맺읍니다 (편집자) —

④ 네째 열쇠 - 대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예요. 이 한 몸 가운데 남편은 머리 부분을 아내의 심장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머리로서 온 몸의 공급처가 되고 온 몸의 보호자가 되며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아내는 심장으로써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지어요. 대부분 아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가정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가정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머리와 심장사이에 피가 통하지 않는 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예요. 대화가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애했 때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결혼하고 한해 두 해가 가고 긴 시간이 지나면 대화는 거의 없어지고 일상적인 말밖에는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내가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피는 심장으로부터 통하니깐요.

대화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먼저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의 폭발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화를 내거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 대화가 끊어지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않는 점이에요. 대화 중 서로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어제의 잘못, 그저께의 잘못, 1년전, 10년전 마구 거슬러 올라가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그 동안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용서속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포함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때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잘못을, 아내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야 해요. 대화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침묵이예요.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말을 하지 않죠. 딴 방을 쓰기도 하고 일체 해야 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침묵은 오래

감수록 두 사람 사이를 깊이 갈라 놓고 말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못 견디는 행동을 해도 대화를 단절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최악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굶은 못이 삶과 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강하게 내리찍는 햇빛 아래서 피가 마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 치루셨어요.

그러나 그 분이 아마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머리를 돌리실 때, 침묵하시는 한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온 세상은 잠잠해졌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대화할 줄 모르셨어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와 침묵치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말씀을 통해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대화하시거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들로 남편이나 아내와의 대화를 끊을 수 있을까요. 침묵은 무서운 죄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첫째는 서로 배우자를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을 100% 다 알고 결혼하는게 아니지요. 인격적으로 사랑과 순종을 토대로 해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후에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서로 깊숙히 알아가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 알아야만 영접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을 얼마나 실체적으로 잘 알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는 상대방을 용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좋은 점하고만 결혼한게 아니지요. 그 사람의 약점과, 상처와, 부족한 점까지, 상대방의 전체와 결혼한 것이예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 대화는 끊어지고 화목은 깨어지죠.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세요. 좀 덜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상대방을 용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해요. 또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 의사결정은 남편이 내리도록 하는게 옳아요. 물론 이것은 반드시 남편의 의견대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누구의 의견이든 통일이 되었으면 그건 우리의 의견이 되는 것으로 결과에 있어 잘 잘못을 누구에게 탓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예요.

이렇게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입으로만의 대화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에 있는 모든 것으로 까지 다 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되어야겠죠.

5 다섯째 열쇠-기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한 몸이 함께 호흡할 수 없다면 그 몸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곳은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인간이 필요로 느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

상대방을 용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좋은 점하고만 결혼한게 아니지요. 그 사람의 약점과 상처와, 부족한 점까지, 상대방의 전체와 결혼한 것이예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 대화는 끊어지고 화목은 깨어지죠.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세요. 좀 덜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상대방을 용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신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에게 문제를 의뢰하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또한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만을 받기 위한 축복신앙을 종종 비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야 해요.

6 여섯째 열쇠-말씀

성경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 먹는 일은 커다란 업무 중의 하나이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공급하고 준비하고 즐기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지요. 우리 몸은 흠으로 지어져서 흠으로부터 나오는 양분을 섭취해야만 육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몸은 또한 하나님의 입김(영)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가지요. 오늘날 일주일마다 한번 교회 가면 그만이지 집에서까지 무슨 예배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주일에 한번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고 일주일 내내 굶고 사는 사람과 똑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은 오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와 가정기도를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전국방언 7가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 '미안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좋아요, 훌륭해요, 잘했어요, 사랑해요'이 7마디가 바로 전국방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방언 하려고 하실 필요없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해주며 매일 사랑을 고백하며 또 주님을 모셔서 함께 교제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또한 이렇게 천국을 이룬 가정은 우리 주변에 영적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함께

에배드리고 주님을 모신 비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의 시간들이 필요한거죠.

7 일곱째 열쇠 - 그리스도

이 마지막 열쇠가 없으면 앞의 여섯가지 열쇠는 모두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은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한 배에 비유해 보도록 하죠. 한 배를 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열심히 노를 저어 인생바다를 헤엄치는 물결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바다를 순탄하게만 지나갈 수 없어요. 인생이란 바다는 너무 험하고 세상이라는 물결은 너무나 험란하며 심하여 그 배는 언제 파선될 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는다 한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공급하고 준비하고 즐기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지요.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육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몸은 또한 하나님의 입김(영)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배 안에 모셔들이세요. 헛된 노력을 그치고 쉬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가졌던 노를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그가 우리 가정을 천국을 향해 또한 가정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순탄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내 손에 놓여져 있는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은 문제와 어려움투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놓여져 있는 인생은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생각해 왔던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한 7가지 열쇠를 모두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
(이 원고는 새가정부에서 실시한 가정세미나의 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 편집자)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가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괄.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 합 상 사

261-1188·266-9226

대표 오 정 현 집사
오 정 수 집사

금년도 16개의 반으로 구분운영

장·단기계획하여 성경공부에 주력



[원감/김차생장로]



[지도/정은표전도사]

교회설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문
을 연 충현성경학원은 사실 그 이
전부터 보이지 않게 계획되었고 그
필요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주일학교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교
회는 유능한 교사 확보를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 1972년 부

그후 성경학원은 보통반·연구반
으로 나누어 연구반에는 좀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성
경원어, 영어, 교리사, 기독교윤리
등의 과목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한 매달 성경통신강좌를 실시하여
통신으로도 참여하도록 하여 음

4 명의 협동목사(김희보·윤영탁·
신성종·이종윤목사)가 일주일에
하루 저녁씩을 맡아 순수한 성경강
해만을 하기 시작했다.

1982년을 맞아 성경연구원은 지
난 한 해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
고 올해에는 전교인 성경공부를 동
질성을 갖는 16개 소그룹으로 나누
어 매일 저녁 성경공부가 쉬는 날
이 없이 전교회가 성경공부하는 분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또한 학생



터 지도자양성부를 상설로 두고 교
사 양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지도자양성부에는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들보다 좀 더 바
른 성경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들이 물려들게 되자 교회는 이런
성경연구를 위한 조직의 필요를 절
실하게 느끼며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으며 그 기념사업으로 성경학원
을 설립하게 되었다.

교회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처음 설립하였을 때는 학기별로
하여 3년 6 학기를 마치면 졸업을
하는 제도를 사용했고, 당회장 김
창인목사의 설립취지와 같이 순수
한 성경만 강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로 양으로 교인들에게 바른 성경이
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1980년도에 조직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성경학원은 교육위원회 산하
에 들어가 교회내의 전체 교육 프
로그램을 일원화하게 되었다. 그
러나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주교 교
육에만 치중해 왔기에 전교인을 위
한 교육에 치중하지 못하게 되고
전교인 교육 문제는 시급하게 되자
지난해 3월 성경학원을 해체하고
당회직속기구로 「충현성경연구원」
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새로 신설된 성경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탈피, 전교
인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또한 교
회밖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방법도 본 교회의

1981년 충현성경연구원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재관리를 보
완하며 행정력을 강화하여 명실상
부하게 전교인을 위한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모든 준비를 갖
추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
교인을 성장시키고 바른 신앙생활
을 해 나갈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
워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많은 교회가 전교인을 대상
으로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한발 앞서 시작한 우리 교회
가 이 면에서도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기는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다.

성경연구원은 당회장이 당연직
원장이고 원감에 김차생장로, 지도
에 정은표전도사, 부지도에 김경성
전도사 그리고 이사회가 있다.



김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③

나라이 임하옵시며

지난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이 우리의 목적과 말과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번째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②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역하여 쫓겨났습니다. 에덴동산(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은 마음에는 근심이, 몸에는 병이, 인격에는 죄악이 생기고 영육에는 죽음이 생기게 되어 이 세상은 악마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인류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교통수단, 건축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 몇십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겉으로 보기엔 좋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영적인 면을 잃고 들어가 볼 때 오늘날 지구당은 어떠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구는 전쟁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악해져가기만 합니다. 전쟁무기는 고

도로 발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짐승세계처럼 이 지구도 그와 다를 바가 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의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 가정을 파괴시키고 몸은 병들고 인격은 때묻어 하나님 앞에 원수노릇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봐도 동양의 에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평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1차대전 이 끝나기 전에 공산당은 세계인구의 8%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의 세력은 47%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세상)는 얼마나 악하고 위태로운 나라인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이 땅에서는 물론 이 땅을 떠나서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0만, 800만이라 하여 많은 것 같으나 아시아 인구 24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백사람 이상을 전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시아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가정만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하지만 좀더 차원을 높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도 우리는 꼭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또 그 나라 백성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할 때는 권능을, 물질과 건강까지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시비를 가려 상벌 주시는 나라로 억울함 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임하면 근심은 찬송으로 바뀌고 질병은 건강으로, 죄는 의로, 죽음의 공포는 천국의 영생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위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이 어디이었습니까?

첫째, 내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과 교만이 가득찬 내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임금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의 쓸 것을 채우고 남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십자가와 부

활과 전국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목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전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내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 부모님, 나의 자녀들의 마음에 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같이 모이면 찬송을 부르고 가정에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식구는 피곤을 모릅니다. 내일 일할 것에 더 많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내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세째, 우리 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가 천명이 모이거나 만명이 모이거나 하나님 한 분의 명령만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누가 모여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이 덮이고 하나님의 창고의 은혜가 온 식구마다 넘치게 배급되어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네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피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 힘이 없는 나라는 국제적 고아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민족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봉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내 마음에 하늘

-삼월의 시-

무화과 나무의 사연

吳秉學

성문어구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저 한 그루 무화과나무, 한많은 풍상을 견디면서 기다린 그 긴—긴 정한을 당신께서 어찌 모르셨으리이까.

짐짓 시장을 느끼신 당신께서 가지사이를 헤쳐 보실 때에, 거기 꼭 하나의 열매가 잎사귀들 사이 깊숙히 감춰여 있던 것을 당신께서 어찌 모르셨으리이까.

타오르던 정념을 더 못견디다 안으로 안으로만 접어핀 꽃술, 그나마도 부끄러다 차마 가슴을 열지 못하던 서리서리 엉긴 그 곡절을 당신께서 어찌 모르셨으리이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뽕사, 이 쓰디 쓴 말씀이 당신 입에서 떨어지자 그리도 후둘후둘 떨면서 말라가던 저 무화과나무, 저리 비절했던 까닭을 당신밖에 차마 뉘 알았으리이까.

그 며칠 후, 죄없이 저주받았다는 당신 나무형들의 기별이 전해진 때에야 저 말랐던 나뭇잎들이 다시,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고, 여기서도 온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지축이 흔들렸더이다.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과 교회
와 나라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이
방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
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로 축복합니다.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홍콩-홍종만 선교사

*기도제목

① 병중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② 한화 선교 협력회의 발전과 수고하시는 이만렬선교사와 염영택 선교사님을 위해.

● 서독-육호기 선교사

비스바덴, 뤼트부룩 및 하나우교회와 새로이 뿔기에 브루셀 한인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시는 중입니다.

*기도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교회 부흥을 위해

② 선교관 매입과 한독찬송가 출간 위해.

③ 브루셀 한인교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 애굽-이준교 선교사

카이로 한인교회와 한인학교 관리에도 바쁘신데 고국의 목사님들의 방문안내와 공사 현장의 복음전도와 애굽 농촌교회를 방문하고 지교회의 현황과 어린이 선교 문제등을 협의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교회와 선교를 소개하시며 현지인 목사의 안수식에 참석, 축하하고 현지인 사역자를 통한 애굽 선교를 협의하며 적극 추진중임. 특히 종

영사관 김억참 사관의 장녀 김지희양의 뇌부상과 수술후 의식 불명을 인해 깊이 기도하고 계심.

*기도제목

① 애굽 현지인 사역자를 통한 애굽선교의 넓은 길이 열리도록.

② 김지희양의 기적적인 회생을 위해.

③ 지원하고 있는 농촌 지도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④ 각종 지원 구제사업에 큰 열매가 맺히도록

● 아르헨티나-백성룡선교사

*기도제목

① 교포 선교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② 한인교회의 안정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③ 현지인 선교의 주축이 될 대학생 선교단의 발족과 성장을 위해.

●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신병으로 인해 사모님이 한달간에 정으로 귀국하여 계신다. 전화는 66-3563으로 연락.

*기도제목

①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속에 서도 교회의 안정과 부흥발전위해

②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의 길이 열리도록

③ 농업이민 교포의 성공과 온전

한 신앙 발전을 위해.

④ 교회에 필요한 시청각 교재와 각종 부교재의 조달을 위해.

● 호주-김태현 선교사

*기도제목

① 한인 교회의 안정과 부흥 발전을 위해.

② 선교 협력과 선원 선교의 열매를 위해.

● 칠레-유재일 선교사

*기도제목

81년도 활동과 82년도 계획을 보고하며 하나님 주신 특별하신 은혜에 감사하다. 금년 1월 13일에는, 둘째 아들 (진석군)을 순산하심.

1. 한인교회 조직

원주민 교회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 장년 100명, 유초등부 30명, 중고등부 27명에 제직 19명 및 남여전도회를 갖춘 교회로 성장, 교회부지 340평을 계약하고 사단법인 인가를 법무성에 신청하여 인가받고 열심히 신앙 훈련중에 있음.

2. 현지인 선교 준비

1) 선교사님이 현지인에게 얻어 개인지도 받고 열심히 배우고 있음

2) 칠레 장로교회 총회와 협조가 되어 총회장을 만나 WCC(세계 교회 협의회)를 탈퇴한 철저한 재혁

신앙은 소유하고 있으나 선교사들의 철수와 선교비 보조가 끊겨 성직자들 모두가 이중 직업속에 부수적으로 교회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의 칠레 교회를 돕기 위하여 선교사업을 논의함. 특히 산디아고 내 장로교 목사 부부를 초청하여 의논하고 가장 어려운 개척교회 1개소 지원키로 함.

3) 인디언 성경 번역사업을 계속하여 추진

성서 공회장 고메스씨의 방문을 받고 인디언족 성경 번역사업을 돕기로 결정하고 9월 20일을 성서 주일로 지키고 500달러 지원.

4) 사회 봉사 활동
칠레 경찰국 산하 제1고아원과 자매결연 맺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방문하고 위문 및 신앙교육을 실시함.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제 고아원 후원기관(CORDAN)으로부터 고아의 아버지 마크 수 영받음. 또한 선교비 지원이 끊긴 양로원 1개소를 지원 준비중임.

5) 사단법인 한인 연합 장로교회 건국.

금년은 특히 칠레 전체 교포들의 복음화와 현지인 무임목사를 초빙하여 칠레인 복음화를 성취시킬 기관인 교회건물을 짓고 교포들이 유익기관이기도 한 한인 교회의 획기적인 부흥을 준비하는 해이다. 특별한 기도와 지원을 바랍.

*기도 제목

- ① 선교사님 언어의 신속 숙달과 현지인 선교 열중할 수 있도록.
- ② 미국 선교사 철수 및 선교비 지원 중단으로 최악한 장로교회 위해
- ③ 생계빈곤으로 이중 직업 가지고 보수적으로 교회 섬기는 산티아고 6명 목사님 위해.
- ④ 쓰러져가는 개척교회, 양로원 고아원들을 돕기 위한 보조비 충당 위해.
- ⑤ 현지 전도인을 양성할 신학교

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한 성경학원 설립에 필요한 선교비 조달위해.

⑥ 순산한 둘째아들 진석군과 선교사님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⑦ 한인교회의 건축과 전 교포 및 칠레인의 복음화를 위해.

⑧ 국제 경찰에 신청한 영주권의 조속한 발급을 위해.

● 인도 - 엘리아 겔간 선교사

*기도제목

- ① 새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 사업에의 헌신적 봉사를 위해.
- ② 복음 전도사업의 확장과 성도들의 신앙과 발전과 선교의욕 고취를 위해.
- ③ 카쉬빌 최초의 세계 선명회 주최 교역자 회의의 성공적 준비와 성과를 위해.

● 일본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본 업무인 의료사업에도 바쁘신데 외래환자 100여명, 입원환자 27명에게 진도하시는 가운데 특히 10년내 누워만 있는 환자, 말 못하는 중환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영육간의 구원해 주심을 위해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계신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히로미 교회와 호로이즈미 교회에 나가 설교하시고 권사님 준비하신 한국 음식으로 성도의 교제 풍성케 하시며 이윤호 권사님이 인도하는 부인 성경반도 평안중에 이루어짐을 감사.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과 하시는 일의 형통을 위해.
- ② 중환자의 영육간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사 선교의 길이 넓어지도록.

● 서독 - 박용삼 평신도선교사

*기도제목

- ① 지도교수를 통과한 박사 학위논문 교수의 최종 통과를 위해
- ② 장래의 선교 준비사역을 위해

● 본부소식

1. 브루셀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되신 김성완 목사님 3월부터 본교회 시무, 4월초 출국예정으로 2월 28일에는 시무교회인 성광교회에서 당회장님 모시고 이임식 거행.
2. 해외 이민, 유학, 취업자들을 위한 해외이주반 상설반(2개월 과정)창설 및 제1차 교육 시작함.
3. 전도위원회와 협력하여 전도 및 훈련을 위한 "은혜의 삶" 전도지를 본 선교회 지도목사인 오치용 목사 개발, 영문으로 번역도 계획중인데 1차로 전교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구역 권찰 및 확장원에게 교육 훈련 실시.
4. 신병으로 누워계시는 홍종만 선교사님과 귀국해 계시는 김재창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전 성도님들이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히10:24-25)

2월의 새교우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상계 2구역 주영녀
도봉 3구역 이옥경
상계 1구역 백영옥
미아 4구역 김명숙
장능 1구역 최상근
종암 1구역 신갑록

● 2 지구

용담 1구역 박유경
마장구 구역 김주현
임사구 구역 이인선
구리 1구역 강창식
구리 2구역 박용주
전호 2구역 박치득
군자 구역 이영의
용담 1구역 박경숙
도선 구역 도희선
구의 3구역 지준성

● 3 지구

성원 구역 류희선
신당 5구역 이군자
잠실 4구역 최종환
성수 2구역 권용동
신당 5구역 이무순
가락 구역 박익일
왕십리 구역 문정례

● 4 지구

양재 구역 김미애

● 5 지구

필동 5구역 김민정
남대문 구역 천이선
독산 구역 채도숙
사당 1구역 조남의
안양 1구역 정두영
독산 구역 김명구
신길 구역 이상석
사당 2구역 유희선
용산 3구역 조형준

● 6 지구

염리 1구역 최정승
연희 1구역 박학순
인현 1구역 장진옥
인현 2구역 한양금
당산 구역 정득순
마포 구역 이원희
마포 구역 석창훈
망원 2구역 조옥례
서강 구역 황춘영
용문 구역 박문숙
북가좌 구역 윤정희

● 7 지구

장신 1구역 이부일
종로 구역 이윤희
조동 2구역 강준화
남가좌 구역 허영숙
오장 2구역 신양순

결 혼

- 한월남양(유년부 교사) 5일
- 송한성군(송주호씨 유순탄권사 아들)과 박순례양(서대문구역) 6일
- 추덕복군(주관서씨 안묘섭 권사 아들)과 이미경양(중곡구역) 20일
- 최성식양(김병준권사 딸) 27일

별 세

- 예장기씨(김순배집사 시부) 3일
- 신숙자권사(신현상장로 누님) 18일
- 최정순씨(청담 3 구역) 27일
- 김인해씨(개나리 2 구역) 21일
- 이훈화씨(용봉구역) 22일
- 박금녀씨(신당 5 구역) 22일
- 이영훈씨(청구구역) 23일

교역자·장로동정

- 김창인목사 - 대구 북부 교회에서 3월 15-19일까지 북한선교회집회 인도.
- 남성호목사 - 강원도 정선군 신현 교회에서 3월 15-21일까지 부흥집회 인도.
- 조준상목사 - 전북 진안군 진안화심교회에서 3월 16-19일까지 부흥집회 인도.
- 박동실목사 - 전북 장수군 대성교회에서 3월 15-19일 부흥집회 인도. ○사단 군중훈련
- 오치용목사 - 경기도 연천군 제인 교회에서 3월 22-25일 부흥집회
- 최봉호·남성호목사 사택이전(양지연립)
- 전화선설
조준상목사 : 972-9440
박동실목사 : 566-1921
김순옥전도사 : 566-4154
김경성전도사 : 557-3628

이 민

- 이청미(이촌구역)
- 이성숙(회현구역)
- 오재숙(북가좌구역)
- 김수경(장미구역)
- 윤덕중(미아 8 구역)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

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아세아 복음선교회 총회

서울, 4월 11일 여의도광장서

이사장 김창인목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한창

아세아 복음선교회 제4차 총회가 지난 3월 8일 개최되어 한국과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복음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기로 하는 한편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교무 및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무=이환선목사, 강신명목사
이환수목사, 정규선목사

△이사장=김창인목사, 부이사장 김리관목사, 안길웅목사, 김충기목사, 김장석목사, 장경두목사, 총무 백인빈장로, 서기 김영국장로, 부서기 한태옥장로, 회계 최원규장로 부회계 서수은집사.

서울지구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올해들어 4차례의 준비모임을 갖고 지구조직과 예배진행을 계획했다.

지난 75년부터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으로 드려온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오는 4월 11일(주일) 새벽 5시 30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드려지며 참가인원은 80만명으로 삼고 시설준비에 들어갔다.

1백평 규모의 연단을 시설하고 스피커 1백개, 1천5백평 규모의 연합성가대가 동원되며, 예배를 앞두고 시나이산과 태시에 전단을 부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 시민들에게 알린다.

서울지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구는 다음과 같다.

△대회장:오경린, 부대회장:김현중 외 18인, 실무총무:신신복.

총무:박성만, 김소영, 김용도, 이의호, 서기:박재봉, 유상열, △실행위원장:지원상, 위원:21인
감사:오전, 이창로, 사무국장:이인환.

부산 보수교단 기독교장년협

복음신앙간증대회

부산 기독교장년협의회가 주최한 복음신앙간증대회가 지난 8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설교는 이근삼박사, 간증은 우연정집사.

총회 교육이념 설정

새 계단공과 총 주제도 마련

총회교육부(부장 배순조목사)는 총회 교육이념을 설정하는 한편, 새 계단공과와 총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생활”로 확정했다.

3월 1일부터 이틀간 가진 교육전문위원 세미나에서 결정된 교육이념에는 “하나님 주권중심 신관”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중심의 성경관, 은혜언약 중심의 구원관, 그리스도의 교회관과 적극적인 문화관과 사회봉사상을 강조하는 생활관이 표방되어 있다.

또한 총회 교육부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전문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는데 위원장에는 김희보 박사(총신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선교백주년 기념대회

한국기독교 1백주년 기념사업협의회(총재:한경직)는 지난 3월 9일 코리안호텔에서 회장단, 총무단 연석회의를 열고 동 회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동 회의에서는 총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펴며 회장단이 총재를 보좌하면서 각 분과위원회를 분담 맡아 일을 하기로 하고 총무단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기로 했다.

동 기념협의회는 오는 85년도에 한국교회, 1백주년 기념대회 개최와 84년도 여름에는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무인가 신학교 제재

문교부 56개 신학교에 통보

문교부는 81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신학교에 대하여 이 방침을 어기고 학생을 계속 모집하거나 불법적으로 무인가 신학교를 신설 경영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문교부가 밝힌 무인가 신학교는 1백19개교이고, 이중 학생모집을 공고한 것이 56개교라고 밝히고 3월초까지 일차적으로 이들 해당 학교에 엄중히 중지를 요구하고 중지요구 이후에도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교육법 제1백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난·부활주일 찬양

예배위원회는 1982년도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을 맞아 특별찬양을 준비하고 있다. 고난주일에는 제3성가대가 부활주일에는 제2성가대가 각각 연주하게 된다.

- 제3성가대 / 4월 4일, 오후 7시
- 제2성가대 / 4월 11일, 오후 7시

제1성가대에서 부활절 연합성가 참가

예배위원회는 1982년 4월 5일 새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독교방송국과 한국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성가」에 제1성가대가 참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연합성가에는 중현교회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9개교회(영락, 승동, 새문안, 동신, 상동, 노량진, 아현, 종교, 향린)가 참가하게 된다.

1982년도 제2차

성례식 거행

교회는 1982년도 제2차 성례식을 오는 4월 1~4일까지 갖기로 했다. 성례식 일정은 아래와 같다.

- ①문답 / 4월 1일 오전 10시~오후 9시
4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유아부는 12시까지)
- ②세례식 / 유아세례 4월 2일 오후 2시
장년세례 4월 2일 오후 7시
- ③성찬식 / 4월 4일 1, 2, 3, 4, 5부 예배시

송순일·김의철 장로 도미

우리교회 시무장로로 수고하고 계신 송순일·김의철장로가 각각 도미하신다.

송순일장로는 3월 18일 친지방문차 출국하셨다. 송장로는 1963년 4월 장로장립을 받고 시무하셨으며 그동안 당회의 서기, 남전도회 회장, 출판위원회위원장, 월간중현 편집위원장등의 책임을 맡아 수고하여 오셨다.

또한 김의철장로는 아가페선교음악원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부설치와 선교관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도미하게 되는데 오는 4월 2일 출국할 예정이다.



〈송순일장로〉



〈김의철장로〉

예배시간 일부변경

교회는 지난 3월 첫주부터 주일 낮 5부예배를 실시함에 있어 각 지회와의 시간 조정을 위해 각 부 예배시간을 일부 조정했다.

- 1부 / 오전 7시
- 2부 / 오전 10시 30분
- 3부 / 12시
- 4부 / 오후 2시
- 5부 / 오후 3시 30분
- 주일·삼일절녀 / 오후 7시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구역확장원 훈련 실시

심방위원회는 지난 3월 9~12일까지 제1차 지구별 구역확장원 전도훈련을 매일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본당에서 실시했다.

전도인을 전도자로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는 한 세대 1명 이상의 구역확장원을 두고 전도를 통한 구역배가운들을 목적으로 한 금번 훈련은 9일(1,2지구), 10일(3,4지구) 11일(5,6,7지구) 구역확장원이 모여 훈련을 했고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전체가 모여 훈련을 받았는데 주로 개인전도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강사로는 김원남, 장정일 목사와 이양우 강도사가 수고하셨다.

부지도 임명

교회는 공석중인 주일학교 새가정부 부지도에 오태용 전도사를 임명했다. 오전도사는 중등부·고등부·대학부·새가정부 교사와 월간중현편집위원으로 수고해 왔다. 오전도사는 합동신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다.

또한 전도위원회 북한선교분과 부지도로 김오룡전도사를 임명했는데 김전도사는 현재 총신연구원 2학년에 재학중이다.



〈오태용전도사〉



〈김오룡전도사〉

□ 인사이드 □

1. 예배위원회

① 임명

제일성가대	박경숙	소프라노
제삼성가대	백영선	소프라노
제삼성가대	이혜봉	소프라노
제삼성가대	임선애	앨토
제삼성가대	민병남	앨토
제삼성가대	민병일	앨토
제삼성가대	김홍준	테너
제삼성가대	한형석	테너
제삼성가대	유인규	테너
제삼성가대	정영덕	베이스
제삼성가대	정관석	베이스

② 퇴임

제일성가대	전광환	소프라노
제일성가대	최인성	앨토
제일성가대	홍성직	테너

제삼성가대	연화숙	앨토
제삼성가대	허정순	앨토
제삼성가대	김성희	앨토
제삼성가대	김동연	베이스
제삼성가대	김완주	베이스

2. 교육위원회

① 임명

유치부	박필동(여)	임시교사
유치부	장현식(남)	임시교사
유치부	김은선(여)	정교사
유치부	김명화(여)	임시교사
유치부	이영숙(여)	임시교사
유치부	이인숙(여)	임시교사
중등부	이미경(여)	임시교사
중등부	김석향(여)	임시교사
고등부	황의만(남)	정교사
고등부	이현경(여)	정교사
장세2부	이성순(남)	정교사

② 퇴임

유치부	정숙자(여)
유치부	양제자(여)
유치부	송희명(여)
유년부	민경희(여)
유년부	권희준(여)
유년부	전연희(여)
중등부	양영태(남)
고등부	김명숙(여)
고등부	이인실(여)
장년부	표완식(남)

각 종 통 계

1982. 2. 7 (매월 첫 주 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 주 수요일예배후 9 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번 버스를 타고(광주에서 하차)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전화〉

교환 101번을 거서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세	주 일 낮	I 부	177	310	487	총 세 대 수
		II 부	421	1,031	1,452	
		III 부	434	975	1,409	
		IV 부	277	679	956	
		계	1,309	2,995	4,304	
배	주 일 저 녀	233	488	721	신	교인
		154	372	526		총수
		26	25	51		남
		169	121	290		여
		115	112	227		계
주	영 아 부	26	25	51	금	남
		169	121	290		여
		115	112	227		계
		183	196	379		남
		210	209	419		여
일	초 등 부	192	168	360	별	남
		128	145	273		여
		77	97	174		계
		60	78	138		남
		42	99	141		여
학	장 새 I 부	29	67	96	교	남
		36	310	346		여
		49	116	165		계
		22	84	106		남
		26	55	81		여
교	산 업 교 육 부	29	32	61	인	남
		3,089	5,769	8,858		여
		22	84	106		계
		26	55	81		남
		29	32	61		여
합	계	3,089	5,769	8,858	현	남
		22	84	106		여
		26	55	81		계
		29	32	61		남
		29	32	61		여

3월의 행사

교 회

12·19·26일 / 전제천야기도회
30일 / 정기당회

전도위원회

14일 / 남진도회 월례회
21일 / 여전도회월례회·해외복
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8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교육위원회

23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심방위원회

7일 / 제적회
14일 / 권사회 월례회

21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28일 / 구역권찰회

건축위원회

29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자산관리위원회

21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재정위원회

21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출판국

21일 / 출판국 월례회
28일 / 월간충현 3월호 발간

편집하고 나서

*... 전교인 성경공부를 특집으로 다루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성경공부의 방향과 그 현황 등을 소개하려 했으나 필자 사정으로 소개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용조목사님 글을 통해 다소 전교인 성경공부에 관한 방법과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양은순집사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는 교회·내외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경진한 가정형성을 위해 좋은 글을 얻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새가정부에서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실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시리즈로 이번 호에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소개한다. 앞으로 결혼시즌을 맞으며 그리스도안에서 바른 결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 곧 4월에는 성례식이 있고 우리는 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 성찬식을 1년에 4회 하게 되므로 행여 아무 생각없이 성찬에 참여하지나 않을지. 매번 생각해야 될 문제를 또 다루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보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참여해야 할 것이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조 현 명

편집위원 /

김 하 진 조 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중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3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3호

통권 제97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3월 22일 인쇄

1982년 3월 28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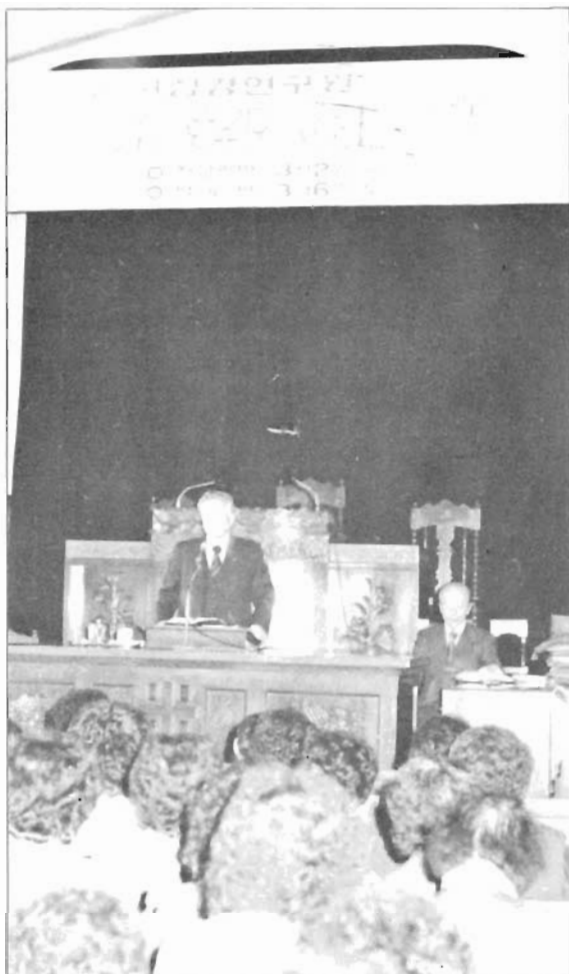
충현 교회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

전화 / 260-3407·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1982년도 1학기 중현성경연구원 개강예배를 지난 3월 2일(화) 오후 7시와 3월 6일(토)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렸다. 금년도는 동질성을 갖는 16개반으로 편성, 공부하게 된다〉



〈1982년도 제 1회 구역회장원 교육을 심방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9~12일까지 모였다〉



〈해외복음선교회와 주일학교 선교부에서 해외이주자를 위한 해외이주반을 지난 3월 21, 28일 개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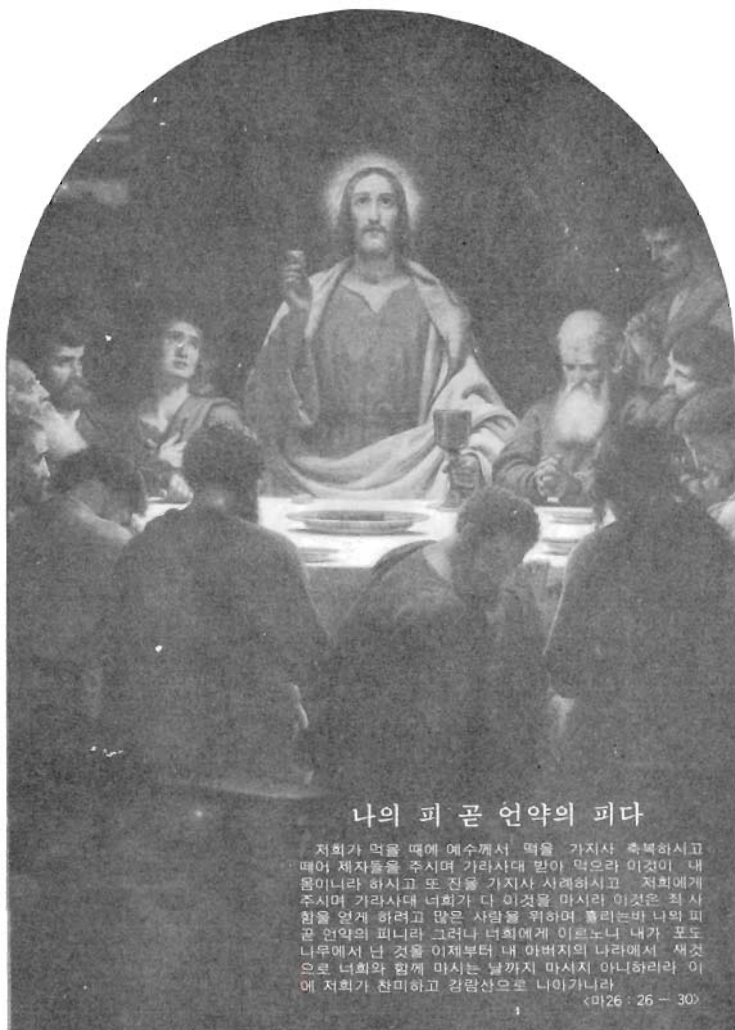


〈주일학교 유치부는 2월 20일 어린이 전도집회를 가져 많은 어린이를 교회로 인도했다〉



〈주일학교 영아부는 지난 2월 1, 2일 전국영아부 교사수련회를 가졌다〉

실로암
못가에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뎌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
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
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26 : 26 - 30〉